

한국식품과학회 관련기관 소식

고려대학교 한국식량안보연구소, 제4회 식량안보세미나 개최

고려대학교 한국식량안보연구소(소장 박현진)는 2026년 6월 30일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한반도 선사 음식문화의 인류사적 고찰’을 주제로 제4회 식량안보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한국산업식품공학회, 한국식생활문화학회,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등이 후원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반도 음식문화의 기원과 초기 발전 과정을 고고학·역사학·인류학 및 식품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음식문화의 역사적·인류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우리 민족의 주요 식량자원인 쌀과 콩의 재배 기원, 토기를 통한 끓임과 발효문화의 형성, 고조선



과 고구려의 음식문화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세션 1에서는 이윤조 충북대학교 명예교수가 ‘청주 소로리볍씨의 발굴과 벼 재배의 기원’, 조용구 충북대학교 명예교수가 ‘한국의 선사 볍씨와 재배의 기원’을 발표하였다. 이어 세션 2에서는 이경아 미국 오리건대학교 교수가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 콩과 팥의 재배 기원을 고찰하였다. 세션 3에서는 이문실 미국 로드아일랜드칼리지 교수가 한반도 해안 토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끓임·발효 전통과 식문화 형성을 살펴보았으며, 세션 4에서는 박대재 고려대학교 교수가 문헌자료를 토대로 고조선과 고구려의 음식문화를 조명하였다. 각 발표 후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이철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선사시대부터 고대에 이르는 한반도 음식문화의 형성과 발전을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 성과를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 식품사 연구의 기반을 확장하고 식량안보를 역사·문화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